

동물권행동 카라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2022

동물권행동 카라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

‘콘텐츠’는 우리의 활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. 콘텐츠가 곧 캠페인으로 이해되는 지금, 해당 가이드라인은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들이 쉽고 정확하게, 인권과 동물권을 함께 생각하며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동물권 운동을 하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합니다.

목차

1	쉽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.
2	공장식 축산업으로 학대받는 동물들을 위해 육식 전시를 금지합니다
3	편견 없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
4	혐오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5	잔인하고 선정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에 주의합니다.

01. 쉽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.

- 12세 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.
-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, 전문 용어 등에 대해서는 각주나 괄호 등의 형태로 해설을 제공합니다.
- 문장은 가급적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주제가 달라지면 단락을 구분합니다.
- 외국어 중 우리말 대체어가 있는 표현은 가능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, 표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02.

공장식 축산업으로 학대받는 동물들을 위해 육식 전시를 금지합니다.

- 돌보는 동물들에게 닭죽이나 삶은 고기 등을 먹이는 모습 / 펫밀크로 멍푸치노 등을 만들어 먹이는 모습 등 ‘육식’이 연상되는 모습을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.
- 장례를 치를 때, 닭가슴살이나 캔 등 간식을 동물과 함께 소각하지 않습니다.
- 동물을 감정이 있고 지각력이 있는 존재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합니다.
- 영화/드라마/다큐 등을 제작할 시 ‘고기’ 연출이 필요하다면 콩고기 등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.

03. 편견 없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

3-1. 대상화

- 동물의 특정 품종에 대해 일반화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. (ex. 비글은 악마견)
- ‘순화’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‘사회성’과 관련된 표현으로 동물의 상태를 묘사/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쇼핑하는 행동을 ‘사냥’으로 부르거나, 어떤 것을 전시하는 행동을 ‘박제’라고 부르는 것 등 동물을 대상화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‘물고기’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, ‘어류’ ‘해양동물’ 혹은 고유의 분류 이름(관상어 등)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지시 대명사로서 암컷 동물을 표현할 때 ‘그녀’가 아니라 ‘그’로 쓸 수 있도록 하되, 맥락에 따라 ‘그녀’ 표현을 사용합니다.

3-2. 가족주의

- 동물을 ‘아이’ 등 보살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, 동등한 생명으로서 지칭할 수 있도록 합니다. (맥락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합니다)
- 동물을 돌보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부모-자식간의 관계로만 희석되지 않도록 ‘캣맘’ ‘캣대디’ 대신 ‘케어테이커’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.
- 입양자를 표현할 때 ‘엄마’ ‘아빠’가 아니라 ‘보호자’ ‘입양자’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, ‘대부모’가 아니라 ‘결연자’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.

3-3. 장애

- 신체적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합니다.
(ex.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)
- 어떤 장애를 동물학대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뉘앙스도 보이지 않도록 하며,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진단을 표현하지 않도록 합니다.

04. 혐오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
- 동물학대자 등에 대해서도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외모·인격·성별·연령·학력·장애·지역·인종 등에 대한 비하와 모독 및 편견조장 언어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흡연, 욕설, 폭력 등의 장면을 미화하지 않습니다.
- 저속한 조어나 은어,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을 금지합니다. ‘나쁜 손’과 같이 범죄를 의미하지만 희화화 되어 쓰이는 표현 사용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

05. 잔인하고 선정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에 주의합니다.

- 폭력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상황과 행위에 대해 표현할 때에는 사실 그대로를 과장 없이 객관적으로 표현해 전달하며, 가능하다면 지나치게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생략합니다.
- 탄원서명 등에는 잔인한 이미지나 사체 이미지를 절대 쓰지 않고, 오직 텍스트만 표기합니다.
- 잔인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SNS 커버 이미지에 주의 표시를 명시하며, 뒷장에서도 블러 처리를 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. 필요하다면 흑백 처리까지 진행합니다.

구분		블러 여부	구분		블러 여부
대상	상처(학대)	○	행위 (장면)	살해	○
	상처(사고)	○		폭행 / 구타	○
	상처(병환)	○		구속 및 포박	○
	피 / 상처의 흔적	○		사고 장면	○
	털	X		발작 및 경련	○
	사체	○		정형 행동	X
	벌레(구더기)	○		신음 / 리킹	-
	배설물	○		물체 파괴	X
	오물 및 쓰레기	-		무기(칼, 도끼, 톱 등)	X
	뼈(실물)	X		물건	학대 도구 (밧줄, 전기봉, 쇠파이프 등)
뼈(엑스레이ver)	X				

참고 자료

신문윤리실천요강 <선정보도 금지 원칙>

방송통신심의위원회 <인터넷 내용 등급>

동물권행동 카라 <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: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>

동물권행동 카라 <동물권 활동가를 위한 인권 길라잡이>

동물권행동 카라 '2021 카라 SNS 만족도 설문조사'

동물권행동 카라

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2022 Ver.1

ekara.org

031-959-8600

INFO@EKARA.ORG